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4(2): 63~71, 2018. 12.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ISSN 2465-8146

진화론 관점에서 본 지식창조 시대의 정원문화에 대한 고찰
- 진화정원론의 시작 -

조세환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명예교수

Speculations on the Evolution of Garden Culture in the Knowledge-Creation Era with Special Reference to View Point of Evolutionary Theory
- The Beginning of the Theory of Evolutionary Garden -

Cho, Se-Hwan

Prof. Emeritus,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is aimed to syudy the cause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evolution of contemporary garden culture in the coming of knowledge-creation era. The research method take the book review in special focuses on the evolutionary theories of Charles Darwin, Stuart Kauffman and others related, and speculated on the garden phenotypes in the combination of the evolutionary theories and the rapidly rising garden environment in the contemporary era. The research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two tracts of evolution theories. The one is Charles Darwin's the natural selections theory, and the others is Stuart Kauffman's self-organization theory. Followed by Darwin's theory, Homo Sapience have two kinds of genotype in the DNA. The one is bio-gynotype and the other is cultural-gynotype. Two kinds of genotypes also have garden phenotypes in each. Seconds, the garden phenotype by bio-genotype could be revealed in the types of Biotope Garden, Water Recycling Garden, Roof Garden, Vertical or Wall Garden, Farm Garden, Green Street Garden, Nature Regeneration Garden in city. And also, Ecological Garden, Forest Garden etc. could be manifested in country.

Thirds, the culture-genotype of garden are categorized by seven elements. They are the Tradition Succession, the Freedom from wants of Foods, the Learning of Garden, the Freedom from Spiritual Defects without Nature, the Paradigm of Urban Regeneration and the Economical Creation Wills.

Finally, This thesis concludes that all of these garden genotypes and phenotypes could't be revealed in the phenotype or evolved itself in the course of culture adaption. The efforts of self-organizations by the accentuation of the attitudes, the world view toward garden and actions by garden specialists, citizens,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could lead to the successful evolution of garden culture in this era.

Key Words: Garden, Culture, Evolution, Self Organization, Genotype, Phenotype, Evolutionary Garden

Corresponding author: Cho, Se-Hwan, Prof. Emeritus,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C.P: +82-10-3805-3425, E-mail: chosh3@hanyang.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식창조 시대의 정원 문화 진화의 원인과 향후 정원의 진화 방향 탐색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스튜어트 카우프만의 복잡성이론 등 관련 연구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정원 관련 진화론을 도출하고, 이를 동시대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정원 환경을 배경으로 정원 진화의 문화 형질과 거기에 따른 정원 표현형을 고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화론에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스튜어트 카우프만의 자기조직화론 등 2가지 트랙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유전자 이론에는 문화 유전 형질과 생물 유전 형질 등 2가지 속성의 유전 형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유전 형질들은 각각의 표현형으로서의 정원 유형을 가지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둘째, 생물적 유전 형질에 의해 발현되는 정원의 표현형은 도시의 경우, '비오톱정원', '수순환정원', '옥상정원', '수직정원', '농업정원', '그린 스트리트 정원', '자연재생정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시골의 경우, '생태정원', ' 숲정원'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시대 정원의 문화 유전 형질은 '전통 계승의 형질', '식품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형질', '정원 학습 형질', ' 자연 부재로 인한 정신적 결함의 자유 형질', '도시재생과 경제성 창출 의지 형질' 등 7가지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이상의 7가지 정원 문화 유전 형질의 표현형으로의 정원의 발현은 다윈의 진화론처럼 반드시 환경선택에 의해서만 진화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 대한 정원 전문가, 공공 또는 민간 조직, 시민 등의 태도, 세계관 등의 고취와 같은 카우프만이 주장하는 자기조직화적 활동과 노력에 의해 진화해 나갈 것으로 논의되었다.

주제어: 정원, 문화, 진화, 자기조직화, 유전형, 표현형, 진화정원론

Ⅰ. 서론

인간의 본성에 숨겨져 있는 정원의 유전 형질은 어떻게 발현되어 왔을까? 정원은 인간 정주의 원형(protype)인가? 아니면 인간 정주의 씨앗(seeds)인가? 수많은 의문을 가지며 정원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유전되고 진화되어 왔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정원은 어떻게 진화의 과정을 거쳐 왔을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정원은 어떻게 진화하는 것일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원 진화의 유전 형질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찰스 다윈(Charles Darwin)과 스튜어트 카우프만(Stuart Kaffman)의 진화론을 기반으로 동시대 정원문화 진화의 양상을 해석해 봄으로써 동시대 정원 문화 발현의 원인을 탐색하고, 향후 정원문화 진화의 지향점을 모색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1972년에 국가정책으로 조경학이 도입된 이래 정원이라는 이름의 단어가 요즘처럼 요동치는 때는 일찍이 없었다. 2010년의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필두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코리안 가든 쇼, 서울정원박람회 등 다수의 박람회 개최가 이어지고, 정원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정원산업이라는 이름이 출현하고 최근엔 '숲정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출현한다(전라남도 등, 2018).

농업사회의 산물이기 전에 에덴 정원(Eden Garden)이라는 이름으로 신화시대 인간의 유토피아로 자리매김했던 '정원이 우리나라의 문화사에 그 이름을 올린 것은 지극히 현대적이다. 우리나라 고대 조경사에서부터 근대 조경사에 이르기까지 정원이라는 이름이 없었다. 기껏해야 근세에 들어와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조원(造園)이라는 이름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자에 들어와 정원 문화는 국내·외적으로 급격하게 또,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다윈이 주창한 진화론 또는 진화학으로서의 실체는 생물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사회에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일어난다(도정일과 최재현, 2005; 도킨스, 2018).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생물학이란 과학적 관점과 사회·문화라는 인문학적 관점이 첨예하게 다투는 관점의 장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은 마치 번개와 피뢰침처럼 상호보완적이다. 생물로서의 인간도 진화라는 과정의 실체이지만, 문화라는 인간 특유의 사회적 현상도 역시 진화 한다[1]. 정원이라는 이름은 우리들에게 짧은 역사 속에서 출현했던 낯선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은 자연의 문화화로서 생물로서의 인간 DNA의 형질로서 면면이 이어져 왔고, 그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발현된 것 이상 다름 아니다. 따라서 농업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21세기 지식창조사회라는 이름의 급격한 사회 환경적 변화 양상에 따라 정원도 사회 적응의 단계를 거치며 새로운 형상의 사회·

문화적 실체로 발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진화의 원리는 생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실체가 앞으로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진화정원론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를 전개한다.

Ⅱ. 진화론 관련 이론과 정원의 진화

1. 다윈의 자연선택론과 정원의 진화

생물학 분야에서 다윈 진화론의 핵심은 자연선택설이다. 생물 진화의 핵심은 자연 즉, 주변 환경이 그 생물체를 선택해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진화의 유무, 살아남느냐 아니면 도태되어 사라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적자생존의 법칙이다. 그래서 다윈 진화론의 가장 핵심 언어는 '생존'과 '번식'이다. 초기 다윈의 진화설은 다윈주의(Darwinism)로 과학사 또는 사회사에 혁신적 하나의 가설에 불가했지만, 후에 제임스 왓슨(James Wattson)과 프랜시스 클릭(Francis Crick)이 유전자를 발견(코스타, 2011)하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하나의 이론 또는 학문으로 발전했다. 나아가 오늘날에는 진화사회학, 진화심리학, 진화의학 등 아종의 학문으로까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정원도 진화의 관점에서 따져 볼 수 있다. 정원이 어떻게 진화해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물 진화론 관점에서 보면 정원이 지나온 흔적으로서의 과정은 살펴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지 그 목적성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생물학적 진화론에서는 생물의 '생존'과 '번식' 차원 이상의 다른 진화의 목적이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피엔스가 원형질의 단세포 동물의 태동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생물 형태의 진화를 거쳐 600~800만 년 전에 유인원이 탄생하게 되고, 이후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Homo Australopithecus),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 호모 엘렉투스(Homo Erectus) 등을 거쳐 20~22만 년 전에 오늘날의 현대인인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로 진화(다이아몬드, 2005; 브라이언, 2012; 하라리, 2015)해 왔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호모 사피엔스가 자연선택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향후 어떻게 진화[2]해 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대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 사피엔스 DNA의 1.6%에 해당하는 문화 유전 형질에 의한 진화 즉, 디지털 기술,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등 통섭과 융합 기반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진화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호모 사피엔스가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불멸의 신과 같은 존재 즉, 기존의 호모 사피엔스와는 다른 종, 호모 데우스(Homo Deus)로 진화해 갈 가능성(하라리, 2017)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유전 형질에 의한 생물적 진화와 다르게 문화 형질의 발현에 의한 진화, 즉 문화 진화는 향후 진화의 방향성 탐색조차도 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단순히 동물로서의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만든 정원이라는 인간 문화의 한 형태 자체로서의 정원 태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당연히 정원의 진화 방향성 탐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록 생물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문화·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라리가 주장하였듯이 정원도 인간 문화의 한 유형이고, 따라서 주어진 문화적 환경과 조건에 따른 적응의 과정을 노정해 본다면 정원 진화의 기원과 미래 진화의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다.

생물로서의 인간은 그 존재의 배경으로 자연이 필수다. 여타 생물과 마찬가지로 공기, 물, 흙, 식물 등 자연환경이 없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다. 호모 사피엔스의 DNA 중 98.4%가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보노보 등 유인원의 DNA 유전 형질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나머지 1.6%가 상호 다르다[3](하라리, 2015)는 것은 인간이 유인원과 불과 1.6%의 유전자 차이에 의해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1.6%가 바로 인간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문화 유전 형질(genotype)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원은 98.4%의 생물적 유전 형질을 기반으로 1.6%의 문화 유전 형질에 의해 발현된 문화적 표현형(phenotype)이라 할 수 있다.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정원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안전하고 먹을 것이 풍요롭고, 생활하기 쾌적한 '자연의 장소'[4] 이상 다름 아니다. 또, 그러한 자연의 경험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정서를 얻고 치유를 이루는 문화적 장소인 것이다. 정원은 이 두 가지 기능의 관계적 맥락 속에서 1만 년 전 농업혁명이 일어난 이래 지금까지 주어진 자연 및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한 양상으로 지금까지 진화해 온 것이다.

2. 카우프만의 자기조직화[5] 이론과 정원의 진화

정원이 지닌 인간의 생물학적 유전형질, 즉 자연선호 DNA가 어떻게 문화라는 인간사회의 한 특성으로 발현될 것인가? 즉, 정원이 인간의 문화로서 시간의 경관에 따라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가와 같은 사회적 진화 관점에서의 정원 진화의 길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간의 DNA가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발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2가지 이론이 있다. 하나의 유전형질이 생물체의 발현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다면발행

설(pleiotropy)'과 하나의 생물체적 요소가 발현하는 데는 다양한 유전 형질이 영향을 미친다는 '다인자발현설'(polygeny)(도정일과 최재천, 2005)이 곧 그것이다. 이 이론에서 보듯 하나의 유전형질이 어느 특정 현상의 발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반대로 다양한 형질이 특정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화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탄생과 진화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인간의 탄생은 생물학적 현상이 되지만-그래서 정원에서 자연은 여전히 유효한 존재이지만- 인간의 성장은 사회·문화적 사건(윌슨, 2017)이 된다는 맥락에서는 성장의 배경이 되는 환경에 따라 정원은 변이(變異)되고 변형(變形)되며 변화(變化)되고 마침내 다른 유전 형질(예컨대 다른 정원 DNA)을 지닌 양식으로 진화해 나간다.

사회·문화적 사건으로서의 정원의 진화는 어쩌면 다윈의 진화론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다윈은 자연 속에서 어떻게 같은 종이 상이한 형태의 동일종으로 진화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애를 태웠다. 그러나 수튜어트 카우프만(카우프만, 2002)은 '자기조직화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다윈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스튜어트는 우연에 의한 자연선택론만으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생물은 스스로의 자기조직화를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진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스튜어트의 자기조직화 이론을 정원의 진화 관점에서 고찰하면 자연선택에 의해 정원이 진화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연을 대상으로 스스로 자기조직화 과정으로서 정원을 진화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스튜어트의 자기조직화 이론에 의한 진화는 정원과 같은 문화 진화에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정원은 스스로 진화해 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연에 대한 태도, 세계관 등에 따라 의도적인 성향에 따라 진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동시대 정원문화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미래의 정원 진화의 방향을 탐색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Ⅲ. 동시대 정원문화 형성의 배경과 양상

1. 정원문화 형성의 시대적 배경과 특성

시대가 변했다. 정원을 둘러싼 사회·경제·정치 환경이 변했다. 환경이 변한다는 것은 새로운 진화 혹은 도태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부턴가 서서히 찾아온 변화의 침묵이 어느덧 우리 곁에 급격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도 산업사회를 넘어 지식창조사회가 찾아온 것이다. 대 반전의 서막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식창조사회의 도시는 사람, 물자, 미디어, 자금, 교통, 유기체 등 모든 것의 흐름이 가속적으로 빨라지고, 따라서 사물(인프라)이든 (토지)공간이든 고정적이고 장소적 속성을 지닌 것들에서부터 유동적이고 불확정하며 흐름적 과정의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변화해 간다(조세환, 2010).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이 자연의 극복과 개발이었다면 지식창조사회는 자연을 회복하고 재생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난다. 지속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기술, 환경 등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보적 자세를 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도시, 새로운 환경으로 빠르게 진화해 나간다.

지식창조사회에 접어들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도시의 토지와 건물은 산업사회의 과도한 개발 수요와는 반대로 과잉공급의 문제에 봉착한다. 도시의 빈 공터, 빈 건물, 이전적지, 버려진 인프라, 오염된 브라운 필드, 쇠퇴된 산업단지 등에서 보듯 토지의 공급의 문제는 종말을 고하고, 대신 과잉되어 남아도는 도시 토지에 에너지, 위락·휴양 등 새로운 이용과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임유경, 2015).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시민사회는 형평성, 웰빙과 복지 그리고 힐링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게 되고, 민주사회가 발전할수록 시민은 정치·사회적 참여를 희구하게 된다. 산업사회에서의 기능 중심의 분리와 단절이 미덕이었던 것이 가치 중심의 혼성(Hybride)과 융합(Convergence)이 새로운 미덕으로 다가온다. 기능의 엔지니어링을 뛰어 넘어 상상력의 엔지니어링 '이미지니어링'(Imagineering)이라 하여 점점 더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계획(Vlaue Planning)적 욕구를 추구한다. 산업사회에서와 같이 느리게 변화했던 시대에나 가능했던 계획체계(Planning System)는 점차 종말을 고하고, 빠르게 매 순간순간마다 적응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략계획 체계(Strategic Planning System)가 새롭게 다가온다(조세환, 2010). 지식창조사회는 이 모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대 혼란의 시대이다. 동시대 정원 문화가 창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큰 변화의 물결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동시대 정원의 양상은 어떻게 출현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서술해 본다.

2. 정원문화 변화의 양상들

지식창조사회의 도래는 한국 정원 분야에도 앞선 시대에는 볼 수 없는 정원 트랜드 현상들을 연출시켰다. 수목원·정원법

이 2015년 7월에 입법되며 산림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정원을 제도적으로 주도하기 시작했다. 국가정원, 공공정원, 개인정원이라는 이름이 법령에서 나타나고, 2015년 9월엔 순천만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다. 한국정원문화협회, (사)한국문화포럼,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한국정원디자인협회 등 정원 관련 단체가 줄지어 나타났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2010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더니, 2013년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14년엔 코리안 가든 쇼, 2015년엔 서울정원박람회가 개최되었다. 2017년엔 경기도에서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에는 울산정원박람회가 개최되었다. 2018년엔 숲정원이라는 개념의 정원을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구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 모든 정원문화 변화의 출발점을 찾자면 국제무대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한 몇몇 정원 디자이너의 역량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전통 있는 영국, 첼시 플라워 쇼에서 한국인 초유의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황지해[6] 작가는 국내에 큰 정원 파장을 일으켰다.

정원 변화의 양상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내용적, 형식적 양면에서 정원의 외연을 넓혀 나갔다. 도시공간에서 수 순환을 유도하는 수순환정원, 생물들의 서식지적 환경을 조장하는 생태정원, 건축물의 옥상에 조성하는 옥상정원, 건축물의 벽면을 장식하는 수직정원, 도시농업을 조장하는 도시농업정원 그리고 정원을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숲으로 키워 내는 숲정원[7](홍광표, 2018)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전통적 정원의 영역인 주택공간을 떠나 외연의 도시로, 숲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Ⅳ. 지식창조사회 정원 진화의 발현 해석

1. 생물학적 유전 형질 관점에서의 정원 진화의 발현

생물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연을 필요로 한다. 또한, 햇살, 바람, 흙, 물, 식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야생의 자연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겐 필수적이다. 35억 년 동안 인간은 생물적 진화 과정을 통해 생물적 특성을 지니며 생존하고 번식해 왔다. 그러나 인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7만 년 전부터 가상력과 언어 기반의 소통 능력을 갖게 되는 인지혁명(하라리, 2015)을 통해 생물적인 특성에 더하여 지적인 존재로 일대 혁신적 진화를 겪게 된다. 수렵채집 시대의 인간이 경험하였던 원시 야생의 자연은 한편으론 인간에게 생활의 터전이면서도 또 한편으론 포식자와 자연의 재난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두려움과 경외와 극복의 대상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인간은 농업혁명을 그치며, 자연을 문화화 한 것이 이른 바 정원이다. 정원(Garden)[8]은 생물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35억 년에 걸쳐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자연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극복하고, 오직 인간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자연의 모습으로 문화화한 모습이다. 도시를 제2의 정원으로 비유하고 정원을 제3의 자연(Nature)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경험의 총체, 자연에서 진화한 도시, 도시에서 비롯된 정원의 진화(조세환, 2018)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에덴의 정원이다. 에덴은 아랍의 사막지역에서 발생한 기독교 신화에서 출현하고 있는 이상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이상향 설정의 배경에는 인간 생물적 유전 형질의 생존 본능의 발현과 관련되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사막이라는 삭막한 자연환경 속에서 물과 숲과 시원한 그늘이 있는 오아시스처럼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의 갈구,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그 무엇이 바로 정원인 것이다. 38억 년의 진화를 거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DNA의 98.4%에 이르는 생물적 유전 형질의 유전 관성을 지닌 인간에게 정원은 자연의 문화적 발현의 한 양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더구나 산업사회 이후 기계적 도시의 확산은 인간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리현상을 유발시켰고, 오늘날과 같이 극도로 도시화가 진행됨으로 인해 지구기후변화라는 큰 재앙을 초래시키는 상황에서 자연의 가치 인식은 증대되고 있다.

1.6% 문화 유전 형질에 의해 인간은 끝없이 도시를 확산시켜 나가지만 인간에겐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위험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98.4%의 생물적 유전 형질은 결코 1.6% 문화 유전 형질의 독주를 좌시하지 않는다(윌슨, 2017). 인간의 문화 유전 형질은 끊임없이 38억 년 전의 생물학적 진화의 관성에 의해 위험하고 불완전한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발현시키는 양상으로 진화를 해 가겠지만, 그럴수록 또 다른 한편에서 98.4%에 이르는 생물적 유전 형질은 마치 5천 년 전 바빌론의 공중정원(Hanging Garden)이나 이집트 테베(Thebe)의 주택정원처럼 고대도시에서 정원을 발현시켰듯이 거대도시에서 또 다른 자연의 양상으로 정원을 진화시켜 나갈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지구기후변화의 시대에는 기존의 전통적 주택정원의 양상을 벗어나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정원의 새로운 양상으로 발현하며 진화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시의 도로 등 각종 공공의 인프라 공간에서 정원의 발현 양상은 수순환을 위한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의 정원 형태로, 도시 자투리땅에서는 소생물들의 서식을 위한 정원 트렌드로 진화해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뿐만 아니다. 도시의 옥상, 벽면은 산소배출, 수순환, 열 흡수 등을 위한 열섬 현상 저감, 에너지 보전과 같은 기능성 차원의 정원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트렌드로서의 정

원의 진화는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스튜어트의 자기조직화 이론에 의해 진화해 나갈 개연성이 높다. 즉, 정원 관련자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작동시켜 나가는 자기조직화 활동과 어울려질 때 정원은 이러한 양상으로 진화해 나갈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생물적 유전 형질의 발현 차원에서의 정원 진화의 방향성은 도시공간에서 농업정원 발현의 가능성이다. 정원의 원시 사회적 가치는 먹을 것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가꾸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9]이다. 원시사회에서부터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 흔적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한 이동'이다. 굶지 않고, 힘들게 이동하지 않기 위해 식용할 수 있는 야생식물이 풍요로운 곳에 머물며, 야생식물의 씨앗을 곡식화 하고 야생동물을 길들여 가축화 한 것이 바로 농업혁명이다. 정원(Garden)은 울타리를 둘러서 먹을 것을 생산하는, 농업혁명의 최전방에서 발생한 인간의 위대한 자연기반의 문화 발명품이다. 먹을 것을 생산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 생물적 유전 형질을 지닌 인간에겐 농업은 정원 발명의 원천이며, 동시에 정원 DNA의 기본 형질이다. 중세의 수도원을 비롯한 채원들은 비록 에덴의 정원을 상징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인간의 생물적 유전 형질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였다. 오늘날 도시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도시재생의 시대에서는 도시공간에서 농업 또한 재생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공장, 농업빌딩 등의 형태 등과 같이 정원은 농업 발현의 양상으로 진화돼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도시공간에서 도시농업은 인간의 생물적 유전 형질의 유전 관성에 의해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정원의 양상으로 발현하고 진화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생물적 유전 형질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양상의 정원 진화는 결국 DNA의 1.6% 비율에 해당하는 문화 유전 형질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조세환, 2018)로 말미암아 여가, 웰빙, 건강 등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욕구와 맞물려 다양한 정원 양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2. 문화 유전 형질적 관점에서의 정원 진화의 발현

인간의 문화 유전 형질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상정하는 가상력과 언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력(하라리, 2015)에 의해 정치, 사회, 종교, 예술, 철학 등 인문학적 양상으로 발현되고, 인간만이 갖는 인간다움의 특성을 지닌다. '사회적 진화'라고 불리는 이 국면은 인간이 만들어온 기나긴 문화와 문명 역사의 누적이 바로 이 진화의 족적이 된다. 인간의 문화는 진화되며, 또한 유전된다. 이 문화적 형질의 발현과 유전은 때론 생물학적 형질에서부터 비롯되기도 하고, 특별하게도 인간이 지니는 고유의 문화적 형질에 의해 유전되거나 진화되기도 한다. 우리가 생물학적 진화의 관점에서 정원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정원이 진화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주택정원의 양상은 주택에 담장이나 울타리를 두르고, 꽃을 심거나 화목을 심고, 때론 텃밭 정도의 공간을 가지며, 때론 장식물을 두는 이른바 '가꿈의 미학'적 장소이다. 헤르만 헤세[10]와 같은 산업사회의 문학가, 철학자들은 정원을 '자연의 발견'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모네와 같은 화가들은 정원을 예술이라는 장르로 표현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정원이 생존을 위한 원초적 인간의 생물적 형질 발현 기반 차원에서 출발하여 오랜 역사기를 거치며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진화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문화로 발현되는 현상이다.

1) 첫 번째 관점: 자연 궁핍으로부터의 자유[11] 형질로부터의 정원 진화의 발현

인간 서식지로서의 도시는 언제나 자연을 갈구하고 있다. 자연은 인공화된 도시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이 수락되는 특별한 곳 즉, 아파트단지나 빌라 등 공원과 집단적 녹지가 존재하는 곳에 도입되는 성향이 강하다. 반면, 도시화 지역이면서도 자연이 궁핍한 곳 예컨대 도시 저층 저밀의 집단 주거지역, 도시의 중심지구(CBD) 등에서는 자연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차원에서 정원의 형질은 그 지역의 새로운 문화 양상으로 발현될 개연성이 있다.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어쩌면 매슬로우(H. Maslow)가 주장하는 인간의 기본욕구 중 최종적 '자아실현의 욕구'와 중첩되어 정원은 자연이 궁핍된 도시의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개연성이 있다.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형질에서의 정원의 발현은 동시대의 사회적 형평성, 수평적 조직 등 차원에서 '사회협동'과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수단을 통해 급속히 진화[12]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다.

2) 두 번째 관점: 전통계승 형질로부터의 정원 진화의 발현

인간의 태생은 생물적이지만 인간의 성장은 사회·문화적 사건으로서 인간이 재생산 또는 재창출되는 문화적 발현과 괘를 같이 한다. 또한, 전통은 특정 시대의 사회적 약속의 통합체이고, 문화는 그 사회적 약속의 개인화의 양상(도정일과 최재천, 2005)임을 볼 때 정원의 진화는 여전히 전통계승에서부터 발현될 기미가 다분하다. 우리에게 서구적 정원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고대부터 '마당'이라는 전통공간이 있었고, 별서원이라는 정원공간이 있었다. 다분히 유교, 성리학, 도교, 음양오행론 등 동시대 사유의 틀들이 정원공간을 구성하는 사상들이었

다. 이러한 사상의 문화 형질은 수많은 문화적 형태와 색상으로 발현되어 우리의 공간·형태문화를 이루었다.

문화는 학습되고 유전된다. 전통은 계승을 넘어 새로운 문화로 창출된다. 그렇듯이 전통은 과거문화를 넘어 현대문화로 창출되는 양상을 보인다. 전통 형질로부터 현대 문화 창출로 진화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으로서 영국의 첼시 플라워 쇼에서 2년(2012~201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황지해 작가는 소쇄원으로부터 100개 이상의 정원디자인의 모티브를 얻을 수 있고, 또 정원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녀가 첼시플라워 쇼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모두 전통에서부터의 현대적 해석에 기반한 것이었다. 전통이라는 정원 문화 형질에서부터 현대 문화로의 발현, 또는 창출한 것 이상 다름 아닌 셈이다. 전통의 발굴이나 보전 또 계승을 넘어 현대 문화로서의 창출과 같은 현상은 예술, 생태, 문학 등 인간 정신문화의 승리를 보여 줄 향후 한국 정원 진화의 핵심적 관건이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풍수와 같은 전통사상이라는 문화 유전 형질로부터 정원의 양상이 발현될 가능성도 놓칠 수 없다. 대만이나 홍콩의 경우, 오늘날에도 풍수가 갖는 의미는 대단하다. 건축물을 짓는 데도 위치나 형태, 색상 등 맥락에서 풍수는 큰 힘으로 작용한다. 풍수는 자연의 힘을 다루는 생리풍수와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인문풍수가 결합된다. 물, 바위, 식물, 토양, 바람 등의 형태, 색상, 질감 등은 생리풍수와 인문풍수가 융합되어 풍수의 큰 방향을 결정한다. 정원은 전통적 관념의 풍수와 결합되어 새로운 문화로 발현될 수 있다. 풍수적으로 길지인 정원은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치유는 물론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는 새로운 현대 문화로 발현될 개연성이 있다.

3) 세 번째 관점: 정원 학습 형질로부터의 진화의 발현

문화는 학습의 과정을 거쳐 유전되고 또 진화한다. 2010년의 경기정원박람회 개최를 시작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거쳐 최근의 서울정원박람회 개최까지의 과정을 보면 한국의 정원 트렌드는 정보혁명과 함께 발생한 글로벌화의 진행에 따라 유럽의 영국, 프랑스, 네델란드 등 국가들에서의 전통적 화훼 및 정원박람회에서 영향받은 바 크다. 정원이 다차원으로 발현하는 동시대 양상의 전개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외국에서부터 비롯되었고, 그 촉매는 황지해 작가 등의 영향이 컸다고 전술한 바 있다. 영국의 첼시, 독일의 분데스가르텐, 프랑스의 쇼몽, 네델란드의 첸퀘테레 등 세계 꽃 및 정원박람회는 '쇼가든', '정원디자인', '화훼 전시', '정원도구 전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정원 관련 대중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는 행사기획을 통해 세계의 정원 트렌드를 리더한다. 문화와 산업행사로서의 이들 꽃·정원박람회는 글로벌 사회화로 인해 실시간으로 학습되어 우리들의 정원문화를 다양한 차원에서 진화시켜 나갈 것이다. 화훼산업을 육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정원문화를 창출하는 박람회는 화훼, 여가, 예술, 도시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문화 또는 산업의 축으로 진화의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4) 네 번째 관점: '정신적 결함으로부터의 자유 형질'로부터의 정원 진화의 발현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복잡해지고,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혼잡해진다. 인간의 뇌는 생물적 진화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되는 문화적 진화로 인해 적응의 속도가 늦고,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증대된다. 스트레스, 노이로제, 우울증, 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현대인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꿈과 감상, 치유를 위한 미학공간으로 자연이 충만되고 오감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원을 생각한다. 현대인이 겪는 정신적 결함으로부터의 자유 즉, 정신적 치유는 자연과 미학이 어우러진 정원으로부터의 비롯될 수 있다. 단순히 병원에서 환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원만이 아니라, 도시 어느 곳에든, 어느 시간대이든 정신적 여유와 회복, 치유를 기할 수 있는 미학공간으로서의 정원의 도입은 복잡한 도시환경에서 가장 보편적 정원 진화의 길로 나아갈 개연성이 높다.

5) 다섯 번째 관점: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형질'로부터의 정원 진화의 발현

도시재생의 시대는 새롭게 파헤치고 만드는 물리적 차원의 개발(Development)이 아니라, 기존의 물리적 환경이 원래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기능을 되찾거나 살리고 활성화시킴으로서 재생(Regeneration)시키는 시대다. 도시의 빈 주택, 빈 건물, 빈 공간[13]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폐철도, 교량, 고가도로, 육교, 산업단지 등 각종 노후화되고 버려진 인프라가 속출한다. 도시에서 군부대, 비행장, 공장, 학교, 공공기관 등의 이전적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토지이용 또는 관리가 대두된다. 쓰레기 매립장 등의 브라운 필드가 양산되는 등 쓰레기경관(Dross Landscape)이 나타난다. 새롭게 출현하는 이 모든 빈 공간, 버려진 공간, 오염공간, 쓰레기 공간, 노후화 된 각종 도시 인프라는 새로운 토지이용에 노출되어 있다(조세환, 2015).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현재 건축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은 미래에 빈 공지에 대해 '환경재생'이라는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개시켜 나갈 개연성도 있다(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5). 정원은 이 낡고 버려지고 쇠퇴된 공간을 환경재생이라는 이름으로 21세기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새로운 도시 용도로 대체되고 진화될 개연성이 높다.

6) 여섯 번째 관점: '경제적 창출 의지 형질'로부터의 정원 진화의 발현

경제 또는 경제 행위는 생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의 생존 전략 및 행태적 차원에서 발현되는 특유의 유전 형질이다. 경제는 물물교환뿐만 아니라,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 및 경험 제공 등의 형태로 다차원적으로 발현된다. 정원은 문화 또는 산업으로서-재화생산 차원이든 서비스 제공 차원이든-가치를 창출하고 소비되는 방향으로 발현되고 진화될 개연성이 높다. 전통적으로 화훼산업, 정원디자인 등 재화생산과 서비스를 통해 경제 행위에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지식창조사회에서와 같이 다양하고 더 복잡한 사회에서는 정원의 경제적 유전 형질은 보다 더 다양한 차원으로 더 폭 넓게, 또 깊게 발현되고 진화될 개연성이 높다.

향후 도시공원은 인간의 생물학적 유전 형질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적응의 문제와 함께 시민사회의 발전으로 주민의 참여와 가꾸기의 대상으로, 또 관리가 아닌 경영과 운영의 개념으로 재편될 소지가 높다. 공원을 가꾸고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은 공원의 정원화의 의미가 깊이 베어져 있다. 도시공원의 정원화는 시민사회의 협동을 유도하는 공동체운동의 현장이 됨과 동시에 공공의 개입을 대체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지식창조사회의 농촌은 농업생산의 경제적 효율성 저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길[14]을 찾아 나아가게 될 것이다. 농촌도시민으로서의 삶의 질 제고, 농촌마을·도시 관광의 자원, 귀촌, 귀농민을 위한 인센티브 등의 자원으로서 정원은 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도시의 경우 역시,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특히 빈 공간 출현의 경우, 정원이 자연재생과 여가·관광 등 가치를 생산하는 사회 진화의 길로 발현될 개연성이 높다. 도시의 아파트단지는 기존의 공원 개념 차원의 조경 한계를 넘어 주민이 가꾸고 즐기는 새로운 차원의 정원 가치계획과 디자인(Value Planning and Design)을 요구할 것이다. 단순히 입주민의 감상의 정원이 아니라, 브랜드 공간으로 출현되고 재산가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인간의 경제적 형질로부터의 새로운 정원문화의 발현과 진화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동시대 국내에서 급격하게 발현되고 진행되고 있는 정원문화의 원인과 향후 진화 방향을 다윈의 자연선택론과 카우프만의 자기조직화 이론[15] 관련 등 진화 이론을 기반으로 탐색해 보고자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는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다윈의 진화론 관점에서 정원 진화의 발현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형질은 생물적 유전 형질(bio-genotype)과 문화적 유전 형질(culture-genotype)로 구분되고, 이들에 의해 각각 생물적 표현형 정원으로의 진화와 문화적 표현형 정원으로의서의 진화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고찰되었다. 그러나 진화는 자연선택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물체 또는 생물체 집단의 자기조직화에 의해 이루러진다는 스튜어트의 복잡성 법칙에 기반하여 특히, 인간의 문화는 스스로의 의식, 태도, 세계관 등에 의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해 나간다는 관점이 논의되었다. 스튜어트의 이론에 대한 논의는 지식창조사회의 도래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의해 정원문화가 우연히 진화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로서의 정원 전문가, 시민,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등의 의지와 협업적 참여에 의해 정원문화가 진화되어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둘째, 정원문화의 진화를 유발시키는 환경으로서의 동시대 지식창조사회는 지구기후변화라는 큰 환경적 변화의 도래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도심공간의 공동화와 빈공간, 빈집의 발생, 각종 도시 인프라의 쇠퇴와 폐기, 쓰레기장 등 폐기경관의 탄생, 브라운필드의 발생, 공장, 군부대, 학교 등 각종 이전적지의 발생과 더불어 자연의 회복과 재생이라는 녹색성장 패러다임 등 사회·문화·경제적 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시대 지식창조사회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주택단지이든, 공원이든, 아니면 도시 인프라이든 이들 공간이 비어져 있든가? 아니면 채워져 있는가? 등의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그리고 '비움'과 '채움'에 상관없이 도시와 농촌의 공간은 다차원의 표면(Surface)을 구성하며, 기후변화적응(수순화. 열섬현상 등), 에너지, 휴양·위락, 관광, 생물종다양성, 심지어 농업 등 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원문화 공간들로 충만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간의 생물적 유전 형질에 의해 발현될 수 있는 '정원 표현형'(garden phenotype)은 도시인프라 시설 또는 폐 인프라 시설, 빈 땅, 빈 집 등을 대상으로 도시 '소생물권 정원', '수순환 정원', '옥상정원', '수직정원', '농업정원', '그린 스트리트 정원', '자연재생 정원' 등으로 확대되어 전개되어 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이라는 지역 공간에서는 '생태정원', '숲정원' 등의 양상으로 정원이 진화되어 나갈 것으로 논의되었다.

다섯째, 인간의 문화 유전 형질 관점에서 발현될 수 있는 '정원 표현형'(garden phenotype)은 '전통계승 형질', '궁핍으로부

터의 자유 형질', '학습의 형질', '정신적 결함으로부터의 자유 형질', '지식창조사회의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형질', '경제성 형질' 등 7가지가 문화 유전 형질에 의해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문화 유전 형질에 의한 정원 진화의 발현은 정원 전문가, 시민참여, 공공 및 민간기관 등의 협업적 참여에 의해 7개 형질 간의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혼성과 융합 등 복잡한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조직화[16]적 노력에 의해 미래 정원 진화의 양상을 새롭게 발현시키고, 그로 인해 정원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갈래로 진화해 나가게 될 것으로 논의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볼 때, 정원과 진화론을 통섭하고 융합시킴으로써 정원의 발전에 대한 관점을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의 시계열적 나열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문화와 생물이라는 인간 본성 기반의 네트워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전환시켰다는 점, 또 그러한 관점의 전환을 통해 과거 사실의 정원 발전을 넘어 미래 방향의 정원 발전의 방향을 탐침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는데 연구의 학술 및 실천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원 진화 이론은 실천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향후, 본 연구에서 제기된 생물적 문화 형질, 문화 유전 형질에 따라 정원 표현형의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가 후속되고 평가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원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으로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 1. 여기에는 생물학 중심의 자연과학자와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등 인문학자와의 치열한 관점과 영역 싸움이 있다(도정환과 최재천, 2005).

주 2. 사실 호모 사피엔스의 생물학적 진화는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까지 있어 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0~22만 년 동안에 걸쳐서는 더이상 진화가 없었다. 따라서 인류의 생물학적 진화는 향후 특별한 지구적 대변혁이 없는 향후 더 이상의 진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 3. 초파리는 인간과 70%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밀러, 2018)는 사실은 인간은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기반의 생물체임을 깨닫게 해준다.

주 4. 신화 속의 에덴정원(Eden Garden)이 바로 이런 정원의 기원이다.

주 5. 비평형상태의 동적 시스템은 끊임없이 요동하고, 특이점에 이르면 종래의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요동을 통해 출현한 새로운 질서를 소산구조(dissipative structure)라고 하고, 그러한 소산구조가 출현하는 과정을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라고 한다.

주 6. 황지해 작가는 2011년 첼시 플라워 쇼에서 아티즌 가든 부분 최고상, 금상을 동시에 수상하고, 2012년엔 쇼 가든 부분 금상과 회장상(한국 최초 기록)을 수상하는 등 2년 연속 첼시 플라워 쇼에서 한국인 초유의 쾌거를 이뤘음.

주 7. 메리 레이놀즈(Mary Reynolds)는 저서 『The Garden Awakening』에서 키큰 교목, 중간 크기의 교목, 관목, 초본, 지피식물, 땅속식물, 덩굴식물 등 7개의 층으로 구분하여 마치 정원이 숲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주 8. Garden은 Gan+E(O)den의 조합어로서 둘러싸서(Gan) 천국(Eden)을 만든다는 뜻을 지님.

주 9. 오늘날의 도시농업은 인간의 잠재의식에 무의식적으로 숨어있던 정원의 꿈이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원과 도시농업은 그 기원에서 같은 형제라 할 수 있다.

주 10. 헤세는 『정원을 가꾸면서』라는 그의 작품에서 "정원을 가꾸는 일, 그것은 자연의 위대함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위대함 속으로 자신을 던져 그 거대한 풍랑 속에서 작지만 소중한 나의 세계를 가꾸어 나가는 일상 속의 철학이자 자연 속의 예술"로 정의하고 있다(정여울, 2015).

주 11.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제안한 사항으로서 시민의 권리 속에 개인의 자유와 함께 사회·경제적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

주 12.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마을만들기' 등 차원에서 이미 출발되고 있다. 이런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차원에서의 진화는 다시 어떤 차원으로 발현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누군가에 의한 자기조직화적 활동에 의존된다.

주 13. 서울의 빈민가와 나주, 김천 등 혁신도시에서는 많은 빈 주택, 빈 공간이 양산되고 있다. 시장이 비게 되어 큰 경제·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 14. 예컨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 6차산업[농업생산(1차 산업)×농업제품화(2차 산업)×서비스산업화(3차 산업)]이 그 예이다.

주 15. 무조건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가 성공적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윈의 이론이라면 생태는 스스로 자기조직화를 통해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는 것이 스튜어트 카우프만의 이론임.

주 16. 카우프만은 자기조직화란 복잡한 전체가 종종 집단적인 성질들과 창발적인 특성을 보임으로서 새로운 진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References

1. 다이아몬드, 제레미 지음. 김진준 옮김(2005) 총·균·쇠. 서울: 문학사상사.
2. 도정일, 최재천(2005). 대담. 서울: 휴마니스트 출판그룹.
3. 도킨스, 에드워드 지음. 홍영남·이상임 옮김(2010)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서울,
4. 밀러, 케네스 지음. 김성훈 옮김(2018) 인간의 본능. 서울: 더난 출판.
5. 브라이언, 페이건 지음, 김수민 옮김(2012) 크로마뇽. 서울: 더숲.
6. 임유경(2015) 근린 재생 자원으로서의 유휴공간, 현황과 과제("공지의 재발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학술 심포지엄 프로시딩. pp. 14-19.
7. 윌슨, 에드워드 지금, 이한음 옮김(2017)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서울: (주)사이언스 북스.
8. 정여울(2015) 헤세로 가는 길. 파주: 아르테.
9. 조세환(2010)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 전략 연구. (사)한국조경학회지 38(2): 109-118.
10. 조세환(2018) 진화도시학의 서막-디지로그 랜드스케이프 도시의 전개. 서울: 기문당.
11. 조세환(2015) 도시재생과 정원 진화의 서설.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정기총회 기조발제.
12. 카우프만, 스튜어트(2002) 혼돈의 가장자리. 파주: 사이언스북스.
13. 코스타, 레베카 지음, 장세현 옮김2011) 지금 경계선에서. 파주: 샘앤파커스.
14. 하라리, 유발 지음. 김명주 옮김(2017). 호모데우스. 서울: 김영사.
15. 하라리, 유발 지음. 조현욱 옮김(2015). 사피엔스. 김영사, 파주.
16. 홍광표(2018) 숲정원의 개념과 유형("전남숲정원 활성화"). 심포지엄 프로시딩. p. 5-7.

Received : 15 December, 2018
Revised : 17 December, 2018
Accepted : 24 December, 2018
3인익명 심사필